

사회적 책임, ‘100년 기업’ 원동력

제9회 국가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대상 25개 기업·기관 수상

기업(기관 포함)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윤만 쫓지 않고 소비자

자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를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지속가능경영이다. 사회적 책임이 소비자의 사랑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이어져 다시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선순환을 이루는 경영전략이다.

그 실천과제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지역사회 기여와 투명경영·공정거래·공정배분이 요구된다. 사회적인 면에

선 윤리경영·인권존중·제품책임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능력이 필요하다. 환경 면에선 생태보호·청정생산과 친환경 설계, 에너지 효율성을 고민해야 한다. 공공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장수기업의 필수요건이 됐다.

(사)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한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달 3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제9회 국가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대상 행사를 열었다. 시

상식에선 16개 부문에서 25개 기업·기관이 수상했다. 이 시상식과 함께 열린 컨퍼런스에선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속가능한 물류 서비스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이재혁 고려대 경영대 아시아경영연구센터 교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CSR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이병민 한국교직원공제회 전략기획팀 차장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발표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지난달 3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9회 국가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대상 행사에서 신세계조선호텔과 교통안전공단 등 25개 기업·기관이 수상 후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제9회 국가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명단

상	부문	기업·기관·인명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상(종합대상)	지속가능경영	(주)신세계조선호텔 / 교통안전공단
보건복지부 장관상	사회공헌	(주)이바가푸드 / K-Water
환경부 장관상	환경경영	(주)대산캐미텍 / 애경산업(주)
고용노동부 장관상	노사협력	(주)그린알로에 / (주)제주항공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상	기업윤리	(주)주비스 / (주)CMS에듀케이션
금융위원회 위원장상	지속가능금융	비씨카드(주) / 한국교직원공제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상	제품책임	(주)미건의로기 / 해마로푸드서비스(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	동반성장	CJ(주) /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우체국소핑)
한국언론인협회&고려대학 경영대 아시아경영연구센터 공동명의 상	국가 지속가능발전 사회공헌상	듀오정보(주)(3년 연속)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술혁신상	(주)이노바이오써지(2년 연속)
	국가 지속가능발전 일자리창출상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2년 연속)
	국가 지속가능발전 동반성장상	1577포장이사(주)
	국가 지속가능발전 안전경영상	조이
	국가 지속가능발전 프랜차이즈상	(주)오리저널사카고피자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자체상	안동시 / 안성시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관장상	경북도청 김관용 도지사

종합심사평

건강한 경영 실천에 격려

한상린 심사위원장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기업에 대한 사회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생산과 이윤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질적 성장을 요구하는 바람이 커지고 있다.

국가 지속가능경영 대상 심사는 3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에는 지속가능경영 평가모형(KSME-CSM)에 따라 후보를 선정했다.

2단계에선 경영자의 경영 이념·비전·전략·성과와 지속가능경영 시

스템을 평가했다. 3단계에선 지속가능경영지수와 공적서 평가점수를 합쳐 종합 토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수상 기업·기관은 사회공헌·환경경영·노사협력·기업윤리·제품책임·동반성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이 사례가 널리 퍼져 우리나라에 수많은 장수기업들이 나타나길 희망한다.

비즈니스호텔·면세점 사업 확대

신세계조선호텔

지난해 100주년을 맞은 신세계조선호텔(사장 성영목)은 새로운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경영 틀을 만들고 있다. 호텔 분야에선 현재 서울 중구 소공동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각각 특1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동작동에 문을 연 비즈니스 호텔 ‘포포인트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을 시작으로 2018년 서울 회현동에 새 호텔을 선보일 예정이다.

업무용 건물인 스테이트 타워도 위탁 운영하고 있다. 호텔 외부에



지난해 문을 연지 100주년을 맞은 신세계조선호텔의 건물 전경.

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플라워 숍도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엔 김해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도 획득했다. 기부 캠페인, 복지사업, 무형 문화재 지킴이 같은 공익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빅데이터 공개해 ‘정부3.0’ 선도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과학적·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운수회사와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 첨단 자동차의 도로 안전 진단, 안전운전 체험교육에 따른 위험한 운전습관 개선 등이 그 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4000명 대로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 해는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활용한 첨단 안전장치 개발, 항공·철도 안전관리 강화에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말 안전한 차 시상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힘쓰고 있다. 자동차검사기술을 민간에 공개해 자동차 검사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운행 기록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교통안전 빅데이터를 공개해 정부3.0 시대를 여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영·호남 상생 힘써

김관용 경북지사

제9회 국가 지속가능경영 대상에서 기관장상을 수상한 김관용(사진) 경북도지사는 민선 6선 자치단체장에 오른 관록을 바탕으로 경북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 ▶미래준비와 지속가능 경영 ▶창의적 마인드와 지역경쟁력 강화 ▶윤리적 리더십과 주민복지 등 4개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지역균형발전협의회장을 역임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경북형 복지모델로 전국 처음 할매·할배의 날을 만들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는 올해 말 안동·예천에 새 둥지를 트는 새 경북도청 시대를 여는 한편, 경북발전 3대 신규상이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현장·소통 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